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❸ 화엄경을 통해 본 대탑의 구조

▶ 한줄 요약
〈화엄경〉의 '십지품'은 보살이 부처가 되는 단계를 그려냈다. 이를 보로부두르대탑에 적용 · 비교하니 매 층에 내용이 연결된다.



화엄 '십지품', 대탑 모든 층 · 회랑에 담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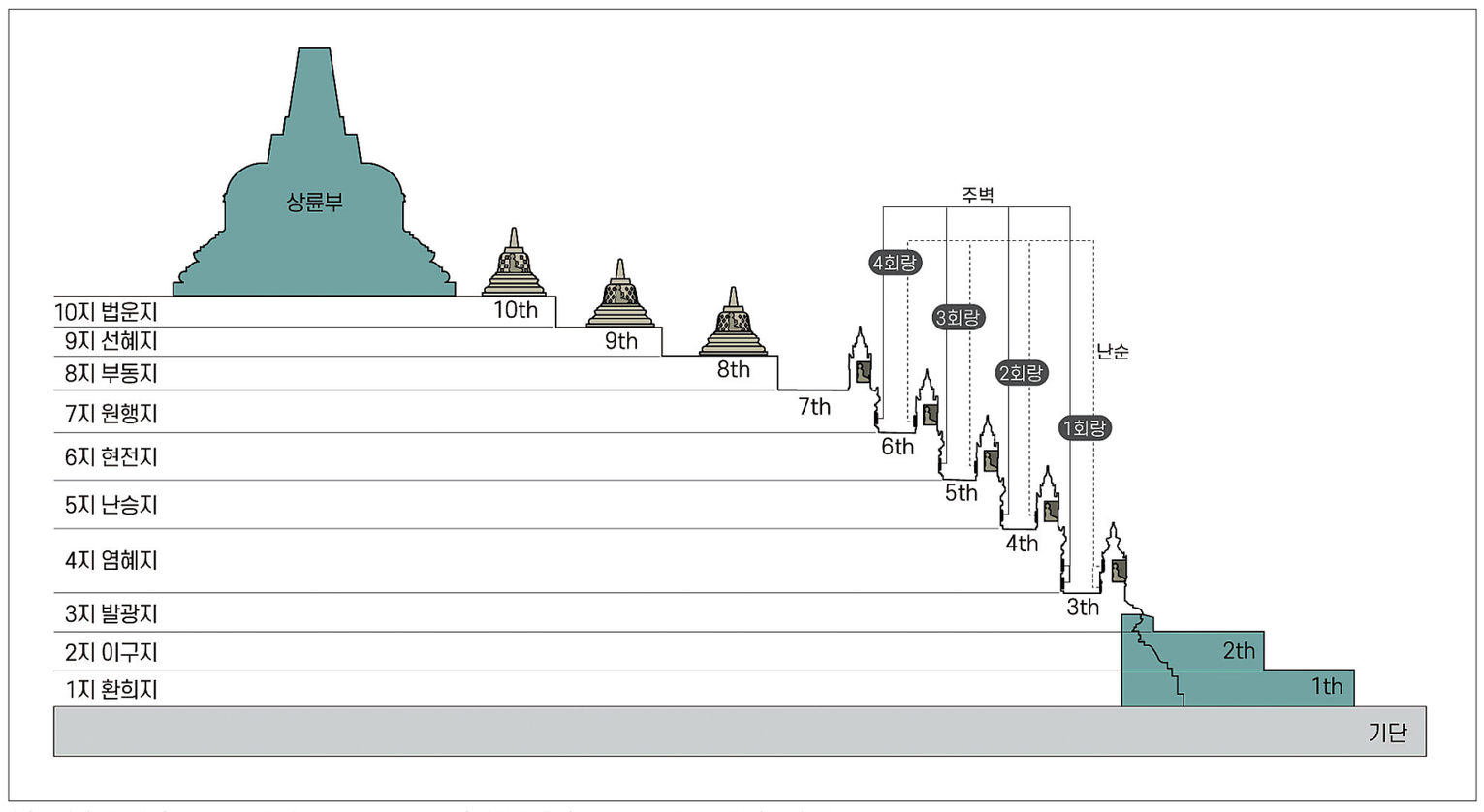
보로부두르대탑이 화엄탑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대탑 건립(775~835년) 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었던 산스크리트본 〈화엄경〉의 수행 구조와 대탑의 10층 구조를 배대하고, 대탑 불상의 배치를 〈화엄경〉의 불타관 우주관에 근거해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탑의 4개 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화엄경〉의 수행 계위(階位)의 상관관계를 살핀다면 보로부두르대탑과 〈화엄경〉의 상관관계를 조명할 수 있다.

이번에는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수행구조를 비교분석해 일치함을 들어내어 대탑이 화엄탑임을 드러내고자한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스크리트본 〈화엄경〉과 내용의 동질성을 보이는 80〈화엄경〉을 분석의 저본으로 활용할 것이다.

〈화엄경〉에서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의 수직적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10'과 연관하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십(十)'은 '화엄의 수'이다. 또한 일체를 '10'이라는 숫자로 보이고 있으니 '10'은 원만 수이기도 하다. 그중 〈화엄경〉에서 전체 내용과 구조를 아우르는 '10'은 '십지품'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80〈화엄경〉의 39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1품에서 제6품까지는 화엄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경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7품에서 제26품까지는 기본적인 수행 세계인데 그중 제7품에서 제25품은 제26품인 '십지품'에 포함된다. 제27-37품까지는 그 전 '십지품'까지 진행된 수행 체계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제7품 여래명호품에서부터 '십지품'까지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38품인 이세간품은 제27품에서 제37품까지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구성이다. 마지막 39품 '입법계품'은 제1품에서 제38품에 내포된 수행 체계와 형식적 구조 측면, 상징적 의미 측면에서도 모든 품을 망라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면, 26품 '십지품'은 1품에서 38품까지의 핵심 내용으로, 〈화엄경〉을 대표하며 동시에 39품 '입법계품'과는 수행 체계와 구조적 측면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화엄경〉 '십지품'과 보로부두르대탑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 했다. 매층과 회랑들이 십지의 단계와 연결된다.

80〈화엄경〉 저본으로 대탑 층 분석
탑 1~10층, 십지품 단계와 연결돼
십지품 · 입법계품 이중 표현되기도
대탑, 보살이 부처되는 과정 담아내

보살이 부처에 이르는 길 '십지품'

'십지품'은 보살이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부처에 이르는 길을 10단계 즉 '10지'로 설하고 있다. '십지품'은 〈화엄경〉의 전체를 대변하는 품으로 각 계위인 '지(地)'를 보로부두르대탑의 각 층과 비교해 일치 정도에 따라 대탑이 '화엄탑'이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더해 질 것이다.

'십지품'의 초지 환희지(歡喜地)는 보살 세계로의 입문으로, 보로부두르대탑의 1층과 대응된다. 대탑의 1층은 범부의 세계에서 불보살이 상주하는 시방세계의 입문을 뜻한다. 1층 〈분별선악보응경〉 내용의 부조상의 특징은 한 장의 부조상에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좌우로 분할해 동시에 보여줌으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해서 선업을 쌓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지 이구지(離垢地)는 대탑 2층과 대응된다. 2지는 십불선업도를 멀리하고 십선업도법을 받아 행하는 단계다. 대탑의 2층 외벽 4면에 신상을 소재로 한 부조상이 조성되어 있다. 내용파악이 쉽지 않으나 십지품의 수행 계위 2지를 표현하고 있음으로 보인다.

3지 발광지(發光地)는 대탑 3층과 대응된다. 2지의 보살은 유의법의 실상이 무상함을 알고, 이행섭과 인욕바라밀을 주로 행한다. 대탑 3층은 주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현세 이야기 120장면이 주벽 상단에, 주벽 하단에는 본생담 120장면이, 난순에는 본생담을 소재로 372장면이 난순 상단에, 128장면이 난순 하단에 조성돼 있다. 발광지의 보살이 유의법의 실상을 알고 부처님의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내용은 부처님의 전생과 현생의 행과 배대되고 있다.

4지 염혜지(焰慧地)는 대탑 4층 2회랑과 배대된다. 이곳 염혜지에서 수행 보살은 10가지 지혜로 안법(內法)을 얻어 몸, 마음, 법을 두루 따라 관찰하고 부지런하고 용맹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위 4지의 내용은 대탑 4층 2회랑 주벽 128장면에서 53선지식을 친견해 법을 구하는 선재동자가 선지식으로부터 보리행과 보리도를 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5지 난승지(難勝地)와 대탑 5층 3회랑과 대응된다. 세친은 5지의 구성을 6지와 같은 것으로 세간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부주(不住)의 의미를 부여했다. 3회랑은 미륵보살이 선재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들(주벽 88장, 난순 88장)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1회랑 2회랑 그리고 4회랑의 입법계품의 52계위 설명의 완성도를 위한 공간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으나 부주의 의미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상응시킬 수 있다. 한 층에 십지품과 입법계품이 동시에 표현된 공간으로 사료된다.

모든 층 · 회랑 '화엄경'과 연결

6지 현전지(現前地)는 대탑 6층(4회랑)과 대응된다. 현전지보살은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지혜가 다 나타나는 지위이며, 부처님의 보리를 따른다. 또한 이승(二乘)의 길을 여의고, 부처님 지혜에 나아가며, 보리분법을 항상 행하고, 반야바라밀행이 증장된다.

4회랑에는 입법계품의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이야기가 주벽 72면, 난순 88면 부조상으로 설치돼 있다. 6지는 십바라밀 중 지혜바라밀의 수행이 주요 수행으로 53번째 마지막 선지식 지혜제일 보현보살로부터 선재동자가 보리도의 가르침을 받는 내용과 일치된다. 3회랑과 같이 십지품과 입법계품의 이중적 표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7지 원행지(遠行地)는 대탑 7층과 배대된다. 7지의 수행자는 매우 깊고 멀리 번뇌를 여의고 법을 구했으나 그 법에 집착한다. 비록 실제를 행하지만 증득하지는 못했다.

7층은 대탑의 다른 층과 다르게 부조상이 없다. 그러나 외벽 감실에 설치된 부처상들의 수인이 6층까지의 부처상 수인 체계와 다르다. 외벽 동서남북 한 면에 17불상씩 설법인 부처상이 총 72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7층 전 방향 같은 수인인 설법인 부처상은 아래 단계와 달리 7지에 이르러 스스로 수행에 의해 번뇌를 떠나 적멸 선정에 들어 방위를 떠난 거의 부처의 단계로 7지와 상응한다.

8지 부동지(不動地)와 8층은 배대된다. 세친에 의하면 8지 이상의 보살은 붓다의 속성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을 뿐 그의 수행은 붓다의 신통과 지혜를 갖추고 불국토에 법신을 나툰다. 이 부동지는 자신의 수행 과보와 부처의 위신력으로 이뤄진 단계로 대탑의 8층과 연결된다. 8층은 7층까지의 방형 구조와 외벽 탑 속 부처상을 모시는 구조와 달리, 주벽과 난순이 없이 8층을 전부 아우르는 큰 원단으로 이루어졌다. 그 위에 32개의 불탑이 가장자리를 따라 원을 그리며 자리하고 있다. 8층, 9층, 10층이 원형탑 구조로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이다. 방형과 다른 구조로 수행 보살의 경계를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9지 선혜지(善慧地)와 대탑 9층은 상응한다. 9지의 보살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잊지 않고 중생에게 한량없는 법문을 전달한다. 9지에서는 해탈 후 중생을 위한 자비를 중시한다. 9지 선혜지는 24불상이 모셔진 탑이 있는 9층과 대응되는데, 8층과 같은 맥락이나 정상까지 점점 좁아지는 구조상 불탑이 적을 뿐이다.

10지 법운지(法雲地)는 대탑 10층과 상응한다. 10지의 보살은 모든 부처님이 가진 광대한 지혜에 능히 들어가며 해탈문, 삼매문을 얻는다. 여래의 10가지 힘을 구족해 부처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지혜와 삼매 · 다라니 · 신통이 이전 계위의 보살들과 비할 수 없이 크며 그 상징으로 연꽃좌가 생겨나고 보살은 그 곳에 앉아 일체 붓다를 친견해 광명에 의한 가피로 여래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한다.

대탑의 정상인 10층은 16개의 불탑이 원형을 유지하며 자리 잡고 있다. 십지의 마지막 계위인 법운지는 보살의 신통력과 자제함은 보살 계위의 최절정으로 대탑 정상과 배대됨은 자연스럽다. 또한, 정상의 확 트윈 전망은 시방세계에서 온 대보살들이 모이는 법운지와 최적의 배대라 하겠다.

〈화엄경〉 '십지품'은 〈화엄경〉의 대표 품으로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수행 계위를 10단계로 나눠, 그 내용이 입체적이고, 수직적이며, 구체적이다.

화엄의 10지를 대탑 10층과 배대한 결과 대탑의 3회랑 4회랑은 입법계품의 수행계위를 표현하기 위한 부조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십지의 각 지가 가지는 수행계위의 의미는 상당 부분 담고 있다. 이는 대탑의 10층 구조가 〈화엄경〉 '십지품'의 수행 계위를 의도적으로 적용한 '십지탑' 즉 '화엄경탑'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아제여행사 대표〉

